

대성하이텍 최호형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 지난 15년간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 ▶ 첨단산업 분야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방침

<2022-12-02>

초정밀 스마트 머시닝 기업 (주)대성하이텍(대표이사 최우각, 최호형)이 당사 최호형 대표이사가 12월 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제 22 회 공작기계인의 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호형 대표는 창업주인 최우각 회장의 경영 2 세로서 지난 15년간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대성하이텍은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70% 이상 증가하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첨단산업 관련 신규부품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호형 대표는 올해 8월에 진행된 IR 로드쇼에서 “대성하이텍은 향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올해의 성장세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자신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사진 자료 (가장 왼쪽이 대성하이텍 최호형 대표이사)

